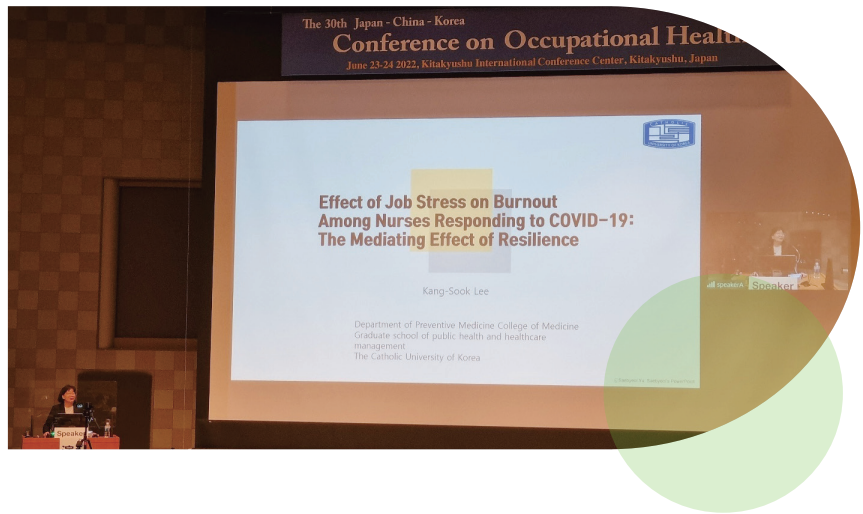


제30차 일중한 산업보건학술대회 — 참관기



이강숙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일본 기타큐슈 국제센터에서 열렸던 제30차 일중한 산업보건학술대회에 보건대학원생 2명과 함께 참석하였다. 그동안 하이브리드로 개최되어 왔으나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오랜만에 현장 참석하여 직장인 건강을 위한 다양한 발표와 논의를 할 수 있었다. 학술대회 측의 안내를 받아 일본 여행사에서 발행한 입국허가 증명서로 한국 여행사를 통해 비자를 받을 수 있었으며 약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놀라운 것은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하면서부터였다. 2층, 3층 그리고 다시 2층을 오르락 내리락 하며 4차례에 걸쳐 코로나에 관한 사항을 체크하며 입국 절차를 밟는데, 전체 탑승객이 작은 비행기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나 시간이 40분이나 소요되었다(참고로 우리나라 입국 시에는 QR 코드를 통하여 미리 정보를 입력한 후 여권 스캔으로 1분도 채 걸리지 않는 일을 말이다). 그런데도 짜증이 나지 않았던 이유는 정말 친절해서였다. 이렇게 귀찮게 해서 미안하다고 연신 인사를 하며 물어보고 여러 장의 종이에 사인하게 했다. 그렇게 입국 절차를 밟은 후, 버스 타는 곳을 알아보다가 연세대학교 윤진하 선생님팀을 반갑게 만났다.



학술대회 첫날 Prof. Morimoto의 개회사,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산업보건협회 백헌기 회장님이 축사 중 산업보건은 “OMNIBUS OMNIA(모든 이에게 모든 것으로)”라고 하여 감동적이었다. Keynote Speech에서는 강성규 교수님이 “우리나라의 경제적 발전과 산업보건”, 중국의 Dr. Li가 “직장건강증진”에 대해 발표했다. 일본의 Prof. Kawamura는 “It’s time of ‘High-Touch’ rather than high-tech for scientific practices to be more humane”에 대한 발표를 하여 인상적이었다. 오후에는 직장에서의 COVID-19에 대한 대처와 Guideline에 대한 Workshop을 하였다. 또한 Dr. Mori의 “Current Challenge in Japan Society for Occupational Health”를 비롯한 강의가 있었고 38편의 포스터가 전시되었다. 그중 6편이 가천대 길병원, 다른 6편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및 예방의학교실, 보건대학원 그 외에 충북대학교, 차의과대학교, 대한산업보건협회 등 총 16편이 우리나라 연구진의 발표였다.

학술대회 둘째 날은 심포지움으로 중국 과학기술연구소 Dr. Xiaoxiao의 “Positive psychological health promotion behavior of early adults”, 북경기술대학교 Dr. Tong의 “Mechanism and dynamic assessment of occupational cumulative health risk under environmental exposure and job stress coupling”, 한국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과 윤진하 선생님의 “Occupational health safety of Platform labor for designated driver service in Korea”, 서울대

직장에서의 COVID-19에 대한 대처와 Guideline에 대한 Workshop을 하였다. 또한 Dr. Mori의 “Current Challenge in Japan Society for Occupational Health”를 비롯한 강의가 있었고 38편의 포스터가 전시되었다.

널리 보기

: 일중한 산업보건학술대회 참관기 ①



학교 예방의학과 이동욱 선생님의 “Remote work, work-life balance and psychological stress”, 일본 Dr. Nishi 의 “Conference activities considering the diversity of occupational health staff”, Dr. Kachi의 “Diversity of Work styles and women’s health”가 발표되어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점심 세미나로 산업의과대학의 Prof. Yamato의 “직장인들의 당뇨 예방을 위한 점심시간에 가능한 운동의 효과”에 대한 재미있는 강의를 있었다.

오후에는 6개 연구 세션에서 21편의 연구가 발표되었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성모병원 안준호 선생님의 “Working hours and DM retinopathy among diabetic workers in Korea”, 가천대 길병원 김의진 선생님의 “Standards for recognition and approval rate of occupational cerebro-vascular diseases in Korea”, 이완형 선생님의 “The early link between shift work and chronic diseases”,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유영섭 선생님의 “Work-related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occupational injuries in the logistic center workers”, 을지대학교 황승호 선생님의 “Influencing factors of PM10 and PM2.5 concentration before and after COVID-19 in subway station, Seoul Metro”,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우극현 교수님의 “Amendment to the act on special measure for corporate deregulation & alternatives” 발표가 있었다. 모두 훌륭한 연구 주제와 결과였고 수려한 영어발표가 좋았다.



나는 지난 2020~2021년 초까지 코로나 대응 의료진들의 과로와 코로나 감염의 두려움, 그리고 가족과 이웃 동료들로부터 받는 소외감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이들의 소진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회복탄력성(Resilience)에 대하여 가톨릭대학교 보건의료경영대학원 건강증진전공 차운정 분당서울대병원 간호사와 함께 연구하여 국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Effect of job stress, resilience on burnout among nurses responding to COVID-19”을 구연 발표하였다. 또한 작년에 책임연구원으로 수행하였던 건강증진개발원 연구 프로젝트인 ‘코로나 시기에 가장 힘든 직종인 택배직 근로자의 흡연’에 관한 연구 결과인 “Awareness and needs of smoking cessation services for vulnerable workers in Korea”를 가톨릭대학교 보건의료경영대학원생 건강증진전공 이다현 간호사가 구연 발표를 하였다.

학술대회를 마치고 귀국하기 위해 코로나 검사를 해야 하는데 학회장에서 공항까지 갔다가 오기에는 무리였다. 검사 후 영문 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는 기관을 찾느라 한참 고생하다가 학술대회 스태프 중 한 분이 친절하게 가능한 기관을 알려주어 검사했다. 원래 검사 결과는 문자로 된 메일로만 보내주는데 검사하는 분이 다음날 근무라고 영문 증명서를 만들어 주겠다고 하여 너무 감사하였다. 우리는 맛있는 마카롱을 선물하였다. 30년 전에 조규상 교수님께서 보내주셨던 3개월간의 JICA 연수프로그램으로 친숙한 일본에서 진행되는 오랜만에 대학원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4박 5일 학회 여정을 생각하면 잔잔한 미소가 떠오른다. 출발 직전에 입국이 허락된 것도 정말 감사하다. ☺

‘코로나 시기에 가장 힘든 직종인 택배직 근로자의 흡연’에 관한 연구 결과인 “Awareness and needs of smoking cessation services for vulnerable workers in Korea”를 가톨릭대학교 보건의료경영대학원생 건강증진전공 이다현 간호사가 구연 발표를 하였다.

